

## 제 5장 동아시아의 아나키즘

### ◆1교시 : 중국, 일본의 아나키즘

#### ▲중국의 삼무주의(三無主義)

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아나키즘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유럽과 미주대륙을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왔어요. 논쟁들이 있어요. 아나키즘의 사상이 동아시아에 내재되어 있었다. 새로운 사상은 아니더라는 흐름이 있어요.

아나키즘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철학을, 노자와 장자에서 찾는 사람이 있죠. 그 이후에 이어져온 동학사상도 아나키즘과의 연관성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아나키즘이 서구의 사상이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많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몇 가지 특징, 개인의 철저한 자유, 사회제도, 정치제도에 있어서 억압하는 것들, 국가와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키즘을 동아시아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중국의 아나키스트 활동가들 스푸같은 사람들은 한자로 사복(師復)이라고 하는데, 아나키즘을 삼무주의(三無主義)이라고 했죠. 이게 동아시아에 지역에 퍼졌어요.

삼무, 가족, 종교, 국가, 무정부주의라고 번역되었는데, 포괄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무정부(無政府), 정부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제적 통치, 지배가 없다는 뜻이고, 무종교(無宗教), 종교도 엄청난 권위죠. 주(主)는 주인할 때 주이죠. 주인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본질적으로 노예, 노예는 아니지만 주종 관계가 생기죠.

모든 종교가 자기보다 우월한 상위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것에서 아나키스트는 배격하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무종교죠. 무가정,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 특성을 중국인 아나키스트들이 주목했던 것 같다.

1910년부터 중국의 아나키즘이 퍼져서 관련모임이 생기는데, 어떤 한 모임의 수칙이랄까 회원이 된 다음 지켜야 할 수칙이 7,8가지가 있어요. 나는 군인이 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수칙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나키 모임에서 탈퇴해야 되죠. 당시는 징병제가 없었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정이 되겠지만 왜냐면 자기 의사와 반해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가겠죠.

평생 채식을 실천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 중 유사배(劉師培)라는 사람, 성을 버렸어요. 그래서 유를 버리고 사배라고만 쓰다가 사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성씨를 쓰지 않고 버렸나하면 자기는 종족주의와 가족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하나의 성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죠. 21세기에 부모성 같이쓰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 성만 따라서 쓰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아예 요즈음에는 성을 버리고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죠. 이유는 비슷한데, 가족이라거나 족보가 상징하는 억압이랄까를 버리고 자유로와 지겠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성은 중요하지 않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한거죠. 그런 활동을, 아나키즘을 이어나가는 것에는 성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중국의 아나키즘이었죠.

무가정, 세 개를 삼무주의라고 하죠. 당시 중국에서는 쑨원이 신해혁명을 일으키면서 삼민주의, 민족, 민생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될 거다라는 상황인데, 여러 단계 나아간 급진적인 주장을 한거죠.

#### ▲중국에서의 시대적 상황

중국이야기를 하자면 오랫동안 청왕조가 중국의 영토를 지배해왔죠. 대부분 인구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이 왜족이 통치를 한 상황이므로 청 황실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이루는데 있어 만주족을 배제하고 타도하는 배만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쑨원이 그런 사람이죠.

아나키즘의 경우 만주족 뿐 아니라 황제제도가 문제라고 봤던 거구요. 배만이 아니라 배왕혁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청 황실이 무너지고 또 다른 지배세력이 등장했죠. 중앙에는 원세개가 지배하고 각 지역에서는 군벌이 나타나 청과 그리 달라지지 않는 지배-종속관계,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런 생활을 했고요.

아나키즘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이 있었죠. 동아시아에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외국의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받아들이는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 ▲일본의 아나키즘

일본 아나키즘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서양의 경우, 엄격한 의미의 장자철학에서 아나키즘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같은 무위(無爲)이지만 노자는 통치에 관련된 부문이라면 장자는 스케일이 크죠. 우주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통에서 아나키즘에서 뽑아내기 보다는 근대화된 의미의 아나키즘, 무정부, 무종교, 무가정을 지향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나키즘의 출발이 서양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죠.

서양 아나키스트 사상들, 윌리엄 고드윈, 프루동, 19세기 중반 무렵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바쿠닌, 그런 계보를 가지고 동아시아에 적용을 해보면, 19세기 말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 조선에 비해 아나키즘의 수용과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나는데, 일본의 경우 1900년대 중국의 경우 1910년, 조선은 1920년대, 그 사상에 감명을 받고 생각하고 활동을 한 것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죠.

일본의 경우 20세기가 시작하자 바로 아나키스트들이 나오죠.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는 나중에 나타나죠.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원래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미국에 유학도 하고 와서 엠마 골드만과도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강연을 했죠. 미국 유학중에 만났다가거나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감화를 받았을거라 짐작하고요.

20세기 초반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죠. 아나키스트들과 볼셰비키가 사회주의를 가지고 논쟁을 하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을 철폐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함께 일해서 함께 얻자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다른 뿌리에서 출발한 거죠.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거죠.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쟁에서 실패하면 제대로된 삶을 살기 힘들어지는거죠. 이윤이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죠. 사회주의는 필요에 따라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나누어쓰는 원리에 기초를 한 운영을 하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맑시즘, 레닌의 볼셰비즘, 마오쩌둥주의도 나오고, 또 한쪽으로는 아나키즘이 있었죠.

## ◆2교시 : 아나키즘과 허무주의, 사회주의

### ▲아나키즘과 허무주의, 사회주의의 공통점, 차이점 1

처음에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사상의 분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한거죠. 러시아에 허무주의자들의 사상이 일본으로 들어왔을 때 아나키즘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죠.



허무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모든 개인을 폐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부, 국가, 지금 당장 폐지해야한다는 그것이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을 허무주의라고 불렀고요, 반정부, 무정부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볼 수 있는데. 20세기 초반 러시아 허무주의가 들어왔을 때 아나키즘과 사회주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분없이 쓰였다는 거죠. 처음 허무주의가 동아시아가 소개되었을 때는 엄청난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었죠.

이거야말로 실존적 고민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구나. 내가 왜 고통을 받았나? 허무주의가 답을 해주더라. 완전히 다르죠. 살고 있는 체제에 강력한 폭력이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점까지가 공통점이죠. 허무주의가 러시아에서 생겨났는데, 짜르제도, 농노제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데 주목하면서 허무주의 경향으로 나타나죠.

허무주의는 행동의 방법으로 테러를 사용하죠. 왜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가에 대해, 노동자 조직, 끊임없는 교육, 선전, 사회주의랑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다른 것 중 하나는 사회주의는 권위적인, 모습, 엘리트주의가 있죠.

아나키스트들이 공격했던 사회주의의 엘리트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죠. 아나키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것은 또 다른 독재이다. 그것을 지지했던 볼셰비키나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시대적 상황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혁명에 쫓겨났던 백군이 권력을 잡으면 오면 너는 내주겠느냐.

혹은 혁명을 이루는데 아나키스트나 사회주의는 비슷한 길을 걸었죠. 몇 가지 방법에서 달랐겠지만, 선전과 교육,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에서 중요한 방법이었고요, 엠마 골드만도 오스기 사카에도 고토쿠 슈스이도 출판물을 내죠. ‘-의 소리’, ‘평민신문’, ‘근대사상’, ‘노동운동’, 일본정부가 검열을 했는데, 마음에 안들면 폐간명령을 내리죠. 다른 이름으로 내거나 한 두달 있다가 같은 이름을 내는 방식을 썼죠.

학교를 세워 교육활동을 한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나키즘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혁명이 일어날거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에 신경을 썼던게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아나키즘에 기반한 노동조합주의자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에도 있었죠. ана키스트들의 지도자의 위치는 아니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운동을 이끄는 것이죠.

#### ▲아나키즘과 허무주의, 사회주의의 공통점, 차이점 2

차이점은 어떤 식으로 투쟁을 하라고 아나키들은 안했고, 사회주의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 다음단계는 이렇게 해라고 끊임없이 했죠. 아나키들은 그렇지 않았죠. 허무주의자들은 아예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죠. 폭압체제를 없애기 위해 테러를 일으킨다.

당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의 총독을 암살하자, 할 때, 그 사람을 폭탄으로 죽이고, 새로운 총독이 오면 또 폭탄으로 죽여요. 5, 6번만하면 안올거다. 그러면 안올거다 죽을 줄 아는데, 어떤 민중들 입장에서든 폭탄사건이 터져서 권력층의 지배계급이 목숨을 잃으면 바로 이거구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낼거다, 라고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죠.

구체적인 대안을 허무주의가 내세웠다는 건 아니고, 반대의 허무주의라는 것은 큰 것에 중점을 둔거죠. 지금같은 세상, 폭압체제를 바꾸기 위해, 일단 무너뜨리는 게 목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달랐죠. 하나의 일치된 경향이 없었죠. 신채호에 관한 부분을 할 건데요. 의열단 경우가 비슷한 활동을 한거죠.

암살대상목록이 있어요. 의열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일본의 강제적인 지배를 끝내고 나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조선족의 민족정부를 수립하는 쪽으로 생각했고, 허무주의 경향을 받아들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대안을 설명했죠.

기본적으로 허무주의는 정치체제를 생각지 않았고, 철학적 궁극증을 추구했죠.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지배체제를 싫어했죠. 없애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였죠. 그 이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면 끝이죠. 허무주의적 입장이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공명을 일으키기는 했어요.

행동의 면에 있어서 테러, 암살 이런 것을 행동방법의 하나로 삼았고, 아나키스트들은 직접행동에 무게를 두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살이었던 것이고, 노동자들의 직접행동, 총파업, 선전이나 교육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믿었던 거죠

#### ▲아나키즘과 허무주의, 사회주의의 공통점, 차이점 3

3.1운동의 경우 조선의 아나키즘이 널리 퍼진 것인데, 그런 힘을 봤던 거죠. 다시 한 번 모여서 아나키즘을 주장한다면 가능하겠다고 본거죠. 조선이 일체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의 고민에 있어서, 이승만은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 외교론을 폈죠.

일본의 제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대국에 빌붙어서 그들로부터 힘을 얻어 물리칠 수

있다. 안창호는 실력양성론을 얘기했죠. 힘을 키워야한다. 3,1운동이, 있던 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87년대 투쟁처럼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20세기 초반 ана키스트들이 테러나, 하나의 수단으로서 받아들였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지 않았죠. 짧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요인을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 억압받던 민중들의 각성에 목적이 있었죠. 우리가 저항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눈에 확 띄는 저항운동을 한거죠. 서울역이나 현수막을 만들어 대운하 반대라고 하면, 와 저런 게 있네, 그런 의미랑 비슷하죠. 80년대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를 살포하듯, 비슷한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인암살이 충격요법이었죠.

지도자가 없어진 후 우왕좌왕하는, 민중들이 충격을 받아 행동을 일으키면 새로운 게 올거다라고 생각한건데, ана코생디칼리스트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을 중요시했다면, 다른 ана키스트들은 학교를 세우고, 언론인처럼 자기 주장을 펴는 출판물도 많이 냈어요. 강연도 했구요, 강연은 유럽에서 많이 했고, 동아시아 경우 억압이 심해서 여행도 제대로 못했죠.

### ◆3교시 : 일본의 아나키즘

#### ▲일본 아나키즘 태동 배경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 경우 감옥에 다녔는데, 경찰들이 나중엔 어떤 반란을 펴나 주시하죠. 미행을 하죠. 오스기 사카에의 경우 상해를 간다거나 아나키스트들의 모임, 국제적 모임으로 유럽으로 간다할 때 경찰이 막죠. 일단 일이 터지면 잡아가죠.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기도 하지만, 한 번 누구를 만나러 간다면 미행을 따돌려야 하니까, 첩보영화 보듯 했죠.



그런 영화, 아나키스트, 암살단원들을 다룬 거죠. 얼마나 1920년대 낭만적으로 살면서 실존적 고민을 했나,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아나키스트 보다 더 허무주의자에 가까운 모습들이고, 그 당시 아나키즘이 유행으로 시작되던 때여서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영화제목을 잘 지었죠.

아리랑의 저자인 님 웨일즈를 보면 유명한 조선이 혁명가, 김산이 만주도, 중국도 여행하고 상해에서 의열단과 만나 지내는 부분, 아나키스트 부분과 비슷해요. 님 웨일즈의 아리랑을 참고했을 거예요.

김산, 장지락(張志樂) 본명을 썼는데, 한 때는 아나키스트였죠. 아나키즘과 사회주의가 차이가 없었으니까, 사회주의 하면 지금 생각하는 아나키즘을 했었을 수도 있었죠.

1860년대 명치유신 후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회사상도 많이 들어왔는데, 일본이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야망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였고,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겠다는 상황, 청일전쟁, 1894년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이 제일 컸다면,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일본에 진거죠.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로 거듭나고, 일본의 사회 사상가들이 우려를 하게 된 거죠. 제어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오겠다고 생각한 거죠.

사회주의, 아나키즘이 하나로 소개가 되었는데, 고토쿠 슈스이를 비롯한 초기의 아나키스트들이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것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속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죠.

서양에서 국가의 경계,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나키즘 내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신채호를 얘기할 때 논의해야 하는데, 민족이라는 것을 유효한 단위로 생각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나가 아나키즘에 원칙에 기반한 사고죠. 민족을 배제하고 피억압자들이 함께 모여 제국주의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국경을 넘어선 연대, 아나키즘의 중요한 방법이었고요,

일본의 경우 그 지점에 주목을 했죠. 고토쿠 슈스이가 제일 먼저 펴게 되었고, 반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는 것, 고토쿠 슈스이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생디칼리즘에 힘을 썼다고 해요.

동아시아 아나키즘, 조세현씨가 쓴 것 보면, 고토쿠 슈스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기본적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연구성과가 축적되긴 했지만 고토쿠 슈스이가 어떻게 살았나, 오스기 사카에의 사상을 알고 싶어도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신채호에 관련된 무정부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싶어도, 중국에서 발행했던 출판물들이 있는데, 선언문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 민족주의에서 아나키스트로 발전했나를 볼 수 있는데,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광란의 세월을 보내면서 저항의 기록이 없어진게 아쉽죠.

#### ▲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와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

고토쿠 슈스이의 경우 대역사건에 휩쓸려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형, 반역, 일반 반역 중 가장 큰 반역인, 천황제에 의문을 삼는게 가장 큰 반역이었는데 고토쿠 슈스이의 경우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죠

조선이나 만주지역에서 러시아의 힘이 없어지고 일본의 힘이 없어지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뻗해진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전체가 군국주의화 길을 걸었으니까, 군사대국이 된 거죠. 고토쿠 슈스이의 경우 온몸으로 저항하거죠.

국가에서 가만둘 수 없어서 너, 천황 죽이려고 했지, 사법부의 판결이 내리자마자 1주일 만에 사형을 당했죠. 오스기 사카에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면서 오스기 사카에에게 큰 영향을 줬죠. 러일 전쟁시기 오스기 사카에는 20살 무렵인데 자기 나라가 젊은이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거죠. 애국주의 관련, 너는 천황을 위해, 대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했죠. 반항심이 있었던 경우 곱게 보이지 않죠.

러일 전쟁도 오스기 사카에가 아나키즘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죠. 고토쿠 슈스이가 발행하던 것을 읽으면서 아나키즘을 배우고 고토쿠 슈스이와 잡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잡혀가 사형선고를 받고, 일주일만에 교수형을 당하고 그게 충격이었죠.

오스기 사카에가 그때 밖에 있었더라면 같이 끌려갔을 거다. 1910년 대역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스기 사카에는 감옥에 있어서 화를 면했다고 하죠. 1910년이면 일본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합병했을 때인데 그 전에 일본이 대역사건을 만든거죠.



이유는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거죠. 국가안보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했다, 조작을 해서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과 같죠. 평화의 댐 모금운동 1986년도에 벌어졌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죠. 평화의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북한이 물로 공격을 할 것이다. 무섭죠. 남한 정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똑같은 것으로 대역사건을 터트린 거죠. 1910년 5월에 폭탄 터지고 너희가 천황을 노렸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로 사형을 시키니까 오스기 사카에는 감옥에서 그것을 보고,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야만적인 국가의 본질, 감옥에서 동료가 사형되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느꼈죠. 빛나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 아나키 활동을 하게 되고요,

#### ▲에스페란토 언어

아나키 운동의 하나 중 하나로 오스기 사카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에스페란토였죠. 왜냐면 중국사람들도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되었고요, 조선사람, 일본사람이 소통이 안되었죠. 국제연대는 중요하고 민족간의 차이보다 하나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은 영어로 쓰겠지만 그때는 영어보다는 배우기 쉬웠던 에스페란토를 했었고, 동아시아 아나키즘의 특징 중 하나로 단일화된 언어를 사용하자가 커다란 특징이죠.

오스기 사카에는 에스페란토 뿐만아니라 계속 일본에서 잡지도 내고, 아나키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많이 읽어봤다고 하죠. 단행본, 출판물들을요. 신채호 선생도 중요한 사람들도 오스기 사카에가 쓴 글을 많이 봤다고 하고, 에스페란토로 쓴 글들이 있어요.

책이 한 글 나왔는데, 에스페란토, 아나키즘 그리고 평화, 카라라는 안중수씨 이름이 낮서 네요. 길바닥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글들 빠진(巴金)할 때 또 다뤄보기도 해요.